

# 영산재, 의식·음악·그림 등 불교문화콘텐츠 '결정체'



“영산재는 부처님의 영취산 법회를 그대로 재현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부처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의식으로, 음악적·무용적 요소와 더불어 연극적 요소 등이 예술적으로 어우러진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 영산재보존회 총재 구해 스님

## # 불교예술은 신심 고양 위험

홍윤식 명예교수(동국대)는 기초 강연 '불교예술과 영산재'에서 불교적 아름다움이 영산재에서 어떻게 표출(상징)됐는가를 설명했다. 홍 명예교수는 “불교적 아름다움은 불교적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움이며, 불교예술은 불교적 아름다움이 불교의식을 통해 표출되는 예술양식”이라 말했다.

영산재는 한국불교신앙의 종합예술이다. 홍 명예교수는 “영산재 가운데 영산작법은 법화신앙에 근거했고, 영혼천도의식은 정토신앙에 근거했다. 식당작법은 선종의례에 속한다”고 분류했다.

홍윤식 명예교수는 영산재의 미적 근원을 <아미타경> 등 정토교 경전에서 찾았다. <아미타경>에서 보이는 극락(極樂)이 즐거움의 극치를 뜻하며 범부 중생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심미감을 느끼게 해 극락왕생의 신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홍 명예교수는 극락과 함께 <무량수경>을 전거로 불교적 아름다움을 해석했다.

홍윤식 명예교수는 “무량수불이 일체중생의 고통에 대비심을 일으켜 48대원을 세우고 그 정토를 장엄 성취한 것이 <무량수경>”이라며, 48대원을 통해 불교적 아름다움은 미추(美趣)를 포함한 아름다움이라 설명했다.

홍 명예교수는 불교예술을 ▲불교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예술적 가치를 부수적으로 하는 것 ▲불교적 현상을 소재로 예술적 요구에서 창작된 것 ▲불교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가 같은 강도로 주장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영산재가 불교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되 예술적 가치를 부수적으로 하거나, 불교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가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윤식 명예교수는 “성스러운 공간과 시간에 몰입해 그 세계를 체험하고 귀의해 표출하는 것이 불교에

술”이며, “영산재도 절차상 성격화 및 상징적 표현을 중립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홍 명예교수는 “성역화의 상징적 표현을 위해 의식만 낭송, 의식공간 장엄·신체적 표현, 질정에 이르기 위한 긴장관계 구성 등이 사용된다”며, 영산재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 # 영산회상은 국악 연구의 보고

서한범 교수(단국대)는 ‘영산회상’의 음악적 가치’에서 영산회상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생략된 8곡으로 이뤄졌다.

영산회상을 4도 아래로 조율김한 평조회상은 ‘유초신지곡(柳初新之曲)’이란 아명이 있다. 악곡수는 관악영산회상처럼 제6곡 하현도드리가 생략된 8곡 구성이다.

서 교수는 “최초 단일곡이었던 영산회상이 9곡 모음곡으로 확대됐고, 세 갈래로 분화돼 레퍼터리 확충이나 연주형태의 다양성을 이루어 왔다”며, “특히 독주의 경우는 기존 틀을 벗고 훨씬 자유롭게 연주된 악곡으로 재구성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영산회상’ 감정절제 이상으로 삼는 높은 차원의 음악 영산재는 선종적인 식당작법과 진언등 밀교 요소 복합

살됐다. 서 교수는 “영산회상은 연주형태에 따라 ▲현악영산회상 ▲관악영산회상 ▲평조회상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현악영산회상은 거문고, 가야금 등 현악기가 중심으로 편성돼 붙여진 이름이다. 현악기 중에서도 거문고 중심으로 ‘거문고 회상’으로도 불린다. 서한범 교수는 “일반적으로 영산회상은 현악영산회상을 뜻하며, 민간음악이란 의미로 ‘줄풍류’라고도 부른다”고 소개했다.

현악영산회상은 제1곡 상량산(上靈山), 제2곡 중령산(中靈山), 제3곡 세령산(細靈山), 제4곡 가락달이(伽樂除異), 제5곡 삼현도드리(三絃透入), 제6곡 하현도드리(下絃透入), 제7곡 열불도드리(佛德透入), 제8곡 타령(打令), 제9곡 군악(軍樂)으로 구성됐다.

“관악기를 위한 영산회상”이라는 의미의 관악영산회상은 삼현영산회상으로도 불린다. 관악영산회상은 영산회상 중 제6곡인 하현도드리가

서한범 교수는 “영산회상은 변주 악곡을 싣고 있는 고악보들의 기보 체계나 기보방법, 변천과정, 풍류문화 등 국악의 실체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며, “영산회상은 한국음악의 이론적 연구를 위한 자료의 보고(寶庫)”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교수는 “영산회상의 전체적인 악곡 수와 연주형태 미진 영향은 절대적”이라 주장했다.

## # 팔관회는 호국의례

양은용 교수(원광대)는 ‘팔관제의 한국적 전개’를 발표했다. 팔관회는 재가신자들이 팔계계를 수지하는 불교의례다.

양 교수는 “팔관회는 불교 흐름을 따라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고구려에 수용된 다음, 진흥왕 때 고구려



매년 단오날(음력 5월 5일)이나 현충일(양력 6월 6일) 마다 신촌 봉원사에서 시연중인 영산재 모습(위).



홍윤식 교수, 서한범 교수, 맥스 바우만 교수, 마쯔오 코이치 교수

상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獨·泰·日 등 해외학자 참여

이번 행사에는 해외학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맥스 피터 바우만 교수(독일, 부르츠부르크대)는 ‘세계 평화와 세계적 관심의 관점에서 본 불교음악’을 발표했다. 바우만 교수는 “영산재는 영취산의 법화경 법회(영산회상)에 대한 회고와 재현이 개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음악”이라며,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그것이 불교정신과 화합하기만 한다면 세계의 모든 국가와 중생에게 유익할 것이며, 세상 모두를 위해 위대한 평화와 행복을 공헌할 것”이라 주장했다.

마쯔오 코이치 교수(일본역사학)는 ‘불교의례와 한일불교, 그 구조와 예능’을 통해 한일 불교의례가 대동소이함을 주장했다.

마쯔오 코이치 교수는 “현행 영산재는 현교적인 의식과 주악·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도 진언·

범어를 사용해 밀교적인 요소도 엮어 보인다. 선종적인 식당작법과 무속적인 요소도 확인된다”며, “영산재에는 기원이 다른 모든 작법이 종종적으로 보태져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쯔오 교수는 “영산재에 사용된 종이 인형은 일본 이자나기류처럼 민간종교에서 사용된 예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산재의 식당작법과 일본 동대사 오미즈토리가 유사하다”며, “한국과 일본의 식당작법 모두 선종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마쯔오 교수는 “본존에 올리는 공양물 형태를 예로 고대 일본 불교의례가 한국불교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신촌 봉원사는 매년 영산재를 시연해 불교문화의 대중적 친화도를 높여왔다. 올해 20회에 이른 시연회가 대중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려왔다면, 매년 개최하는 학술세미나는 영산재를 매개로 세계 불교문화의 이론적 토대를 다져왔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충주
노해웅	1972년생	173	고졸	CEO	청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전문직	구미
임태민	1981년생	180	고졸	공무원	서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홍보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부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전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성	1960년생	175	대졸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기여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자영업	인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졸	회사원	수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졸	금융직	서울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우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졸	공무원	서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유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수	1956년생	150	대졸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선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졸업실장	광주광역시
김정영	1970년생	163	대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67	고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70	대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	서울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배병인	1967년생	169	대졸	회사	부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	영업	서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	영업	전주시
문윤중	1970년생	163	고졸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민익수	1969년생	172	고졸	회사원	부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사	진해시
정연중	1959년생	165	고졸	공무원	충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회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	서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회사	대구시
박준우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졸	자영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조리사	경기도
김진욱	1969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	대구
서중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0	대졸	자영업	경주시
박진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우	1973년생	177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5	대학자	영업	충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서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배중우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정지민	1970년생	170	고졸	회사원	대전
정일준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서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학원	농사업	인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학원	농사업	경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서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영업	대전
박성도	1972년생	168	대졸	졸업강사	충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졸	회사원	전북
손종현	1971년생	172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졸	교육직	서울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장찬석	1967년생	175	고졸	회사원	서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졸	공무원	충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경기도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전주시
정효승	1975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졸	회사원	서천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중음악	충남
박대현	1977년생	168	고졸	회사원	충북
박범진	1975년생	182	고졸	공무원	충남
한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충남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충남
양명진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남
이음철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충남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충남
박진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충남
배중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충남
김상기	1975년생	170	고졸	조리사	경기도
이종호	1970년생	163	고졸	회사원	충남
오진철	1974년생	170	대졸	회사원	충남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충남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충남
전선도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충남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사	충남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융	충남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교도	충남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헤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